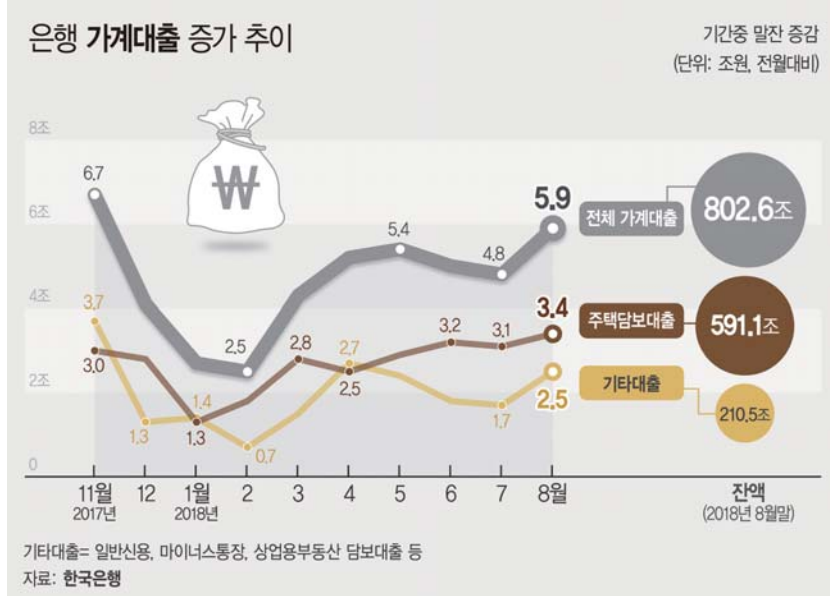


# '집값 폭등'에 은행권 가계대출 5.9조 급증

### 주택담보대출 3.2조 증가...1년1개월만에 '최대'



주춤하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다시 활짝 뛰었다.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 열기가 지속되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용대출 증가폭도 확대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은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고 지역업자가 받는 개인사업자대출도 두달 연속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한국은행의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80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들어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5월 5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5조, 7월 4조8000억원으로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지난달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지난해 8월 증가액(6조6000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2010~14년 중 8월 평균치(3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4000

억원으로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불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어난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000호로 전월(6000호)보다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8~9월은 주로 이사철로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며 "전세자금대출 증가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도 전월보다 2조5000억원 늘어 지난 4월(2조7000억원) 이후 1년 만에 증가폭이 컸다. 마이니츠 통장 등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대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치며 주춤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자금조달을 확대해온 영향으로 풀이됐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액이 5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증가액(5조9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5000억원 늘어 전월(2조5000억원)과 같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로써 개인사업자 대출은 307조1000억원으로 올라섰다.



전남농협, 식품안전점검 11일 박태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이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식품안전점검을 했다.

## 내달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알릴필요 없어

### 장애인전용보험은 예외

내달부터 보험가입에 차별받던 장애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장애인이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사전고지해야 하는 장애관련 항목을 삭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전 눈과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이나 신경기능 장애 여부 등을 고지해야 했다. 팔이나 다리, 손 발, 척추 손실이나 변형 등 장애여부도 알려야 하는 탓에 알게모르게 차별 받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된다.

이에 장애인인 등 비장애인인 등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하면 된다. 다만 5년 내 7일 이상 치료하거나 30일 이상 부양 등 치료이력이 있다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전용보험처럼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계약시 장애로 인한 고지위반 등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 IMF이후 최고

고용시장이 사실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이례적으로 작았던 전월보다 줄었고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고용참사'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8월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010년 1월(-1만명) 이후 최저치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게는 40만명대, 적게는 20만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8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11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16년 3월(-1만2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중상상 지위별로 보면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는 늘었지만 일용직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는 줄었다.

상용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만8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도 5만2000명 줄었다.

지역별 일자리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000명이 줄었다. 그나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이 증가했다.

전월에 이어 40대 취업자 수 감



8월 취업자수 증가, 고작 3000명...금융위기 수준  
여름방학철 불구 아르바이트 줄어 청년 실업 기증

해 들어서는 한없이 추락 중이다.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4만2000명 ▲7월 5000명 등으로 7개월째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처럼 장기간 쪼그라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서 성장이 정체돼 제조업 취업자가 줄었다. 이같은 여파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며 도소매·숙박음식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감소 중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2만3000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서비스업은 7만9000

명도 이어졌다.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8000명 감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래 최대치다.

전체 고용률도 하락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어진 66.5%로 나타났다.

실업지표는 우리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아야했던 시절 이후 가장 좋지 않았다.

8월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증가했다.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동월 기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실업 인구는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아 실업난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열 달간 100만 실업이 이어진 이래 가장 긴 시간 동

안 실업자가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8월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8월을 기준으로 하면 1999년 8월 10.7%를 찍은 이후 가장 높다. 청년실업이 외환위기에 버금간다는 뜻이다.

청년층의 경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청년층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빈 과장은 "8월이라는 계절적 특성으로 단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쪽에서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다 보니 젊은 층의 노동 공급 욕구는 높지만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했다"며 "경기적 영향에 의한 청년실업률 상승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제삼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도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1000명 증가했다. 석 달 연속 50만 명을 웃돌았다.

뉴스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